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이국승 바오로

(1772-1801)



이국승은 충청도 음성의 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천주교 신앙을 접한 뒤 경기도 양근에 있던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찾아가 교리를 배우고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순교에 이를 만큼 신앙이 굳건하지 않아 1795년 을묘박해 때 체포된 뒤 마음을 바꿔 석방되기도 하였다. 이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며 동정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덕에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이국승은 붙잡혀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형조에서 다음과 같은 최후 진술을 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이미 고질병같이 되었으니, 비록 형벌을 받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충주에서 체포되었을 때는 혹독한 형벌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말하고 석방되었지만, 이는 저의 본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사형 판결을 받고 며칠 뒤 충청도 공주로 이송되어 순교하였으니, 당시 나이 29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연중 제2주일 · 일치 주간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49,3,5-6

화답송 시편 40(39),2ㄱ과 4ㄱ,7-8ㄱ,8ㄷ-9,10(◎8ㄱ과 9ㄱ 참조)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1코린 1,1-3

복음 환호송 요한 1,14,12 참조

-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1,29-34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밀과 가라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마태오 복음서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긴 설교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5-7장의 산상 설교와 10장의 파견 설교를 보았습니다. 이제 마태오 복음서의 나머지 설교들을 보겠습니다.

13장에는 하늘 나라에 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대략 알만한 내용들이지요. 이 비유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섞여 있음' '불완전함'입니다. 뿌려진 씨들이 모두 잘 자란 건 아닙니다. 길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늘 나라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면, 그 밭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겨자씨나 누룩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보물과 진주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물에도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25장 '최후의 심판'에 관한 설교와 함께 읽어야 할 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섞여 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섞여 있는 것들이 갈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완성될 때의 하늘 나라와,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하늘 나라의 차이라고 하겠지요. 예수님은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하늘 나라는 자라나는 씨앗처럼 존재합니다. 카를로 M. 마르티니 추기경의 말씀 한 토막이 생각납니다. 가라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가라지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하늘 나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늘 나라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 나라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복음 말씀에 맞추어 하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완성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밀가루 속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이 가라지를 한없이 내버려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13,30). 내버려두는 것은 수확 때까지입니다. 가라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이 자비하시니 가라지로 살아도 불태워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가라지의 비유라는 짧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입맛에 맞는 구절만 골라 읽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분명히, 가라지가 불에 태워질 것이고 나쁜 물고기는 그물에 들어왔더라도 밖으로 던져질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18장, 교회 공동체에 관한 설교로 가 봅시다. 여기서의 되찾은 양에 대해 말하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무책임할 수 없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함께 하늘 나라에 있으려면, 하늘 나라라는 씨앗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으려면, 그가 떨어져 나가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같이 작은 사람이라고 그냥 버릴 수 없고, 백 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라고 그냥 잃은 채로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하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부제들, 고유하고 영구적인 품계

「교회헌장」 제29항

「교회헌장」 제29항은 부제직에 관한 언급입니다. 공의회는 먼저 부제들을 주교들과 신부들보다 낮은 단계의 위계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부제직을 교계의 고유하고 항구한 단계로서 가톨릭교회 안에 다시 복원시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부제들은 주교들의 협력자로서 초세기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 사제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제들의 위상은 처음의 역할을 점차로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세에 교회의 직무가 사제직에 집중되면서, 부제들은 성찬례의 보조자로 여겨지고 하느님 백성에 대한 본연의 기능은 일시적이고 종속적인 차원으로 절하되었습니다.

부제직에 대한 이러한 이해로 공의회 제2회기에 제출된 의안에서는 “위계적 봉사 직무 안의 낮은 단계에서 부제들은 주교들과 신부들을 돕는다. 그들은 거룩한 희생 제사의 거행에 봉사하며 성대한 세례와 거룩한 영성체의 비정규적인 봉사자이다.”라고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최종 본문에서 “부제들은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하여 안수를 받는다.”라고 명시합니다. 부제들은 사제직에 오르기 위한 예비 단계의 보조자들이 아니며, 부제들의 봉사 직무는 성품 성사의 고유한 단계입니다.

예로부터 부제들은 주교의 봉사 직무에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서품되었고, 신부들은 주교와 함께 하나의 사제단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부제들의 봉사 직무와 신부들의 봉사 직무는 구별됩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공의회는 부제들이 주교와 친교를 이루고 그의 사

제단과 친교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제들은 성사의 은총으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부제들의 소임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관할권자가 그들에게 맡긴 것은, 성대하게 세례를 집전하는 일, 성체를 보존하고 분배하는 일,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을 주례하고 축복하는 일, 죽음에 임박한 이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게 하는 일, 신자들에게 성경을 봉독하는 일, 백성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 신자들의 전례와 기도를 지도하는 일, 준성사를 집전하는 일, 장례 예식을 주재하는 일 등입니다. 공의회는 이러한 자선과 관리의 직무를 받은 부제들에게 “자비롭고 부지런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의 봉사자가 되신 주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부제직은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닌 교계의 고유하고 영구적인 품계다. 2025년 서품식 후 주교님들과 함께한 새 부제들

끝으로, 공의회는 부제직을 임명하고자 하는 지역 주교회의의 결정이 로마 교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과, 나이 많은 기혼자들이나 독신의 젊은이들에게 부제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

하늘, 슬픔과 그리움과 아쉬움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

황금색 빛 속에서 하느님을 찾은 송경(宋璟) 클라라는 푸른 바탕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푸른색은 깊은 밤 신비로운 꿈속 풍경이자 슬픔입니다. 오늘은 송경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푸른 그림을 소개합니다.

송경 집안의 가톨릭 신앙은 언니 송숙이 1945년 명동 대성당에서 세례받은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6.25 직후엔 모친 김동성 마리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찬물로 씻고, 눈비에도 가회동 성당 새벽 미사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딸 송경도 세례받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을 입밖에 내지 않고 간절히 기도만 했습니다.

1977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송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이 작품을 그렸는데, 두 해가 지난 때였습니다. 모친을 떠나보내고 슬픔이 너무도 깊어 시간이 필요했지요. 멀리 우측 후경 언덕 정상에는 성당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꽃이 만발한 전경에는 염소와 당나귀 같은 동물과 새 그리고 앓던 소녀 송경이 있습니다. 멀리 달빛 아래선 손 위에 황금빛 새를 올리고 행복하게 정원을 거니는 사람이 있는데, 작가가 그토록 그리워한 어머니입니다. 영원한 미지의 푸른 공간에 있는 어머니.

“슬픔과 그리움과 아쉬움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라는 문구는 작품 〈하늘〉에 대한 송경의 표현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아쉬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송경은 이 작품을 그리고 5년 후인 1984년 가회동 성당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이듬해 1985년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송경은 회상합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죽어 새가 된다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내 화실 근처에서 첫새벽이면 이름 모를 새가 애절하게 서너 번 울고 가는 소리를 들으려 일손을 멈추고 내 창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곤 했다. 새 우는 곳, 시들 없는 꽃들이 피는 곳, 눈물도 어두움도 갈등도 죽음도 없는 곳에 계시리라”(『성서와 함께』, 1997년). 질고 푸른 공간에는



송경(1936~2022), 〈하늘〉, 1979년, 캔버스에 유채, 33.4cm×24.2cm

송경의 여느 작품에서 느껴지는 기쁨과 축복 같은 밝음이 아니라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어머니를 향한 짙은 그리움이 녹아든 까닭입니다.

그는 또 노래합니다. “하늘 없이 우리는 하루도, 아니 한시도 살 수가 없다. 하늘 위 태양이 있어 빛이 있고, 밤을 밝히는 달이 뜨고 별 있어 하늘에 산다. 흙먼지와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도 피는 꽃이 있다. 아주 귀한 꽃들이다. 풀 속에 피는 야생화도 풀꽃도 제자리를 지키며 척박한 땅에서도 잘도 피어 산다. ... 구름, 비, 바람을 필요에 따라 주시게 하는 하늘에 감사드린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떨린다. 무한히 열려 있는 끝없이 영원한 나라 있어 하늘의 사랑은 흐른다”(2004년 5월).

영원한 그리움은 ‘하늘에 대한 동경’의 또 다른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보낸 2025년에 감사하고, 선물처럼 주어진 2026년을 희망차게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행복하시길 빕니다. ☺



교구
소식

상장례지도사(봉사자, 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14~6/13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300시간) 3/14~12/5 매주(토) 09시~18시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장소 신양교육원

문의 031-874-6272



제44기 복음화학교 개강

신자들을 새로운 복음화의 삶으로 이끌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로 양성

일시	1/28(수) 19:30	2/3(화) 20시	2/24(화) 19:30
장소	교구청 지하	덕정 성당	마두동 성당

문의 010-5182-3066 복음화학교 교무국

한마음 사계 피정 - 2월, 3월 (대침묵 피정)

	2월	2월
일시	2/6(금)~8(주일)	3/13(금)~15(주일)
강사	이종경 비오 신부	김승훈 가브리엘 신부
주제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천지창조 6일을 통한 하느님의 선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기억합니다

1월 22일은 **故 노주현 베론 신부**의 2주기입니다.

[담화] 2026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 [1/18~25]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이하여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헌금

결과보고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하느님의 집 2차 헌금**으로 **121,737,000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향후 신설 본당의 부지를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새신봉사회 - 주말 성령묵상회

일시: 2/21~3/7, 매주(토) 13시~17시 [3주간]
장소: 성령새신봉사회 가능동 교육관
(의정부시 호국로 1049번길 90)
회비: 2만원 (교재비 별도)
문의: 010-9787-4202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5지구 영성 피정

일시: 1/19(월) 13:40~16:30
장소: 화정동 성당 403호 (강의, 안수)
강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 (전교·교구 성령새신 담당)
문의: 010-8917-0090

가정회복 기도와 미사 - 고해성사, 상담

일시: 1/21(수) 13시~16:30 (말씀과 찬양을 통한 치유)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가족의 갈등과 화해)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토) 14시 ~ (주일) 14시
회비: 2만원 (1박 3식, 청소년 무료)
장소: 초정성령회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 셔틀버스 운행 (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23(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가톨릭 사이비를 주의합시다.
강사: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 (안수)
(대화동 협력사목, 성서백주단 담당)
문의: 010-2127-0032

천송이 천번 기도회 및 철야기도

천송이 천번 기도회: 1/19(월) 12:30~17시
삼성산 화요 철야기도: 매주(화) 21:30~04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미사·안수·종식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02-874-6346 삼성산 성령 수녀회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4(수)~12(목), 3/6(금)~14(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3일 침묵피정:
1/30(금)~2/1(주일), 2/27(금)~3/1(주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2/13(금)~16(월), 2/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별 출장 피정 신청)

교육 · 모집 ▶▶

목동동 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일시: 매주(목) 20시, (주일) 미사 전, 후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자나 전공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제출
접수: bona84@uca.or.kr
※ 소정의 봉사료 지급

그림틀로 읽는 성경통독

일시: 매주 (월), (수) 10시~11:50 (파견미사)
내용: (월) 열왕기 / (수) 4복음서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인천교구 지혜의샘
(중동역 5분 거리)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상시 모집

대상: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
자격: 호스피스 일반인을 위한 교육 (또는 표준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일시: 주 1회, 평일 4시간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02-2030-4297

‘신난다 첫영성체교리’ 교사 연수

일시: 2/1, 22, 3/8(주일) 13시~18시
문의: 010-7273-5983
※ 생활성서사와 가톨릭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대상: 세례 3년 이상,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2년 과정: 교리학과 (주간, 주5일)
종교학과 (야간, 주4일)
접수: 2/10(화)까지
문의: 02-747-8501, ci.catholic.or.kr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idoran

예수회 금요 기도학교

일시: 3월~6월, 주 1회 평일 10시~13시 (학기제)
장소: 예수회 센터 (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내용: 정기적 침묵피정, 체계적 기도강의,
기초부터 따라하는 기도실습
회비: 15만원 (학기당)
문의: 02-3276-7777 (평일, 10시~16시)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들>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2026 서강대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 모집

모집: 경영학,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전공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 편입, 취업, 대학원 진학 가능
접수: 1/12(월)~2/27(금)
문의: 02-705-8718, scec.sogang.ac.kr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플룻,
트럼펫, 트롬본, 타악기
오디션: 2/1(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 (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 (오디션곡은 자유곡)
문의: 010-4856-2596

은평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안내봉사 (주 1회, 3시간)
대상: 40세~65세, 심신이 건강한 남녀
문의: 02-2030-3456 자원봉사센터

마리아학교 2월 학기 수강자 모집

성경 속 성모님 (전례·4대교의·교부·영성·발현),
33일 봉헌
<대면반>

일시: 2/10(화)~8/2(주일), 매주(화) 14시~16시
장소: 가톨릭회관 205호 (6개월 과정)
<온라인 중반>

일시: 2/12(목)~8/2(주일), 매주(목) 20시~22시
문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하는 프로그램
일정: 3/16~25, 4/20~29, 5/18~27, 6/15~24
(월~수, 10일, 100만원)
장소: 강원도 홍천(서울 출발) / 대상: 60세 이상
문의: 010-7451-9707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청소년·청년 남자 성소자		010-5195-3217

제17기 의정부교구 도시농부학교

자연농의 가치를 배우며 모든 피조물과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교육
일시: 3월~10월 (토) [월2회]
장소: 박달산 텃밭 (파주시 광탄면)
교육비: 17만원 (실습발 분양비 포함)
인원: 25명 (선착순) / 접수: 3/6(금)까지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길음동 성당 묘원 직원 모집

분야: 장례 사역, 묘지 작업자 1명 (계약직)
자격: 운전, 야외작업 가능자 (사무직 아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장소: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길음동 성당 묘원
접수: 1/31(토)까지, 성북구 길음로9길 74 (우편) hope9237@seoul.catholic.kr (이메일)
문의: 02-912-4612 길음동 성당

안내 · 기타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2(월)~13(금) 튀르키예, 그리스 (498만원)
3/19(목)~29(주일) 이집트 (525만원)
3/25(수)~4/4(토) 서부지중해 크루즈 (479만원)
4/13(월)~24(금) 포르투갈, 스페인, 루르드 (555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2/19(목)~28(토) 이집트 순례 (QR)
3/6(금)~17(화) 튀르키예, 그리스 (TK)
3/11(수)~14(토) 일본 나가사키 (KE)
3/15(주일)~26(목) [사순 특집]
포르투갈 까미노 100km 도보 (KE)
3/30(월)~4/9(목) [성삼일 특집]
프랑스 북부와 솔렘 수도원 (KE)
4/8(수)~18(토) [부활 특집]
독일-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KE)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8(수) 일본 나가사키 (4일, 165만원)
4/8(수)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KE)
4/10(금) 5/12(화) 산티아고 도보순례 (13일, 10일, KE)
4/12(주일) 튀르키예, 그리스 (13일, 509만원)
4/14(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559만원)
4/20(월) 동유럽 순례 (11일, 515만원, KE)
4/20(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 (12일, 560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쉬고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겨울 한라산 눈꽃산행과 자연순례:
1/26(월)~28(수), 2/2(월)~4(수)
2/7(토)~9(월), 2/20(금)~22(주일)
3월 사순시기 제주 성지순례와 올레길, 자연순례
추차도: 3/1(주일)~4(수), 3/12(목)~14(토)
차귀도: 3/7(토)~9(월), 3/16(월)~18(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특별피정1: 1월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4박15일)
특별피정2: 7월 / 캐나다 성모성지 (9박10일)
특별피정3: 11월 / 멕시코 칸쿤 성모성지 (10박11일)
문의: 010-5735-4578

이태리 성체성혈 성지순례

이태리 성체성혈 기적 성지 10일 (아시시, 산조반니로폰도, 로마 포함)
4/9(목) 출발 / 지도사제 동행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탐방

3/28(토)~30(월) 대구17
4/24(금)~26(주일) 춘천15, 성내동 성당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서울 명동)
7/9(목)~28(화) 성모발현성지 멕시코 과달루페, 칸쿤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3/17(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4/13(월) 이탈리아 일주 (12일, KE)
4/13(월)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4/14(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4(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5/18(월) 이탈리아, 프랑스 루르드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제주 순례: 1/23(금)~25(주일), 2/6(금)~8(주일), 2/27(금)~3/1(주일), 3/27(금)~29(주일), 4/5(주일)~7(화), 4/18(토)~20(월)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30(금)~2/1(주일)
추차도 성지순례: 3/5(목)~8(주일), 3/12(목)~14(토), 3/18(수)~21(토), 4/11(토)~14(화), 4/23(목)~26(주일)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3/10(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60만원)
3/24(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4/7(화) 일본 나가사키 (4일, 150만원)
4/14(화) 홍콩, 마카오 (4일, 170만원)
5/12(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9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3/28(토) / 비용: 599만원 (+2,2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DIocese of Uijeongbu

신/간/소/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순·부활 시기의 전례와 영성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빛으로

이 책은 각 전례 시기의 주제 및 의식(儀式)과 관련된 교리 내용을 전례적, 성경적, 신학적, 영성적 바탕 위에서 폭넓게 조명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의 의미에 깊이 머물도록 안내한다.

쿠르트 코흐 | 황미하 옮김 | 240면 | 12,000원 | 02-944-0944 바오로딸 인터넷서점



정교회 (正敎會, ecclesia orthodoxa)

전 세계 그리스도교는 해마다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를 '일치 주간'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청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일치로 함께 나아가야 할 '갈라진 교회'인 정교회에 대해 알아보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과 그리스·소아시아·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동방'으로 나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래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전파되어 그리스도교 중심지가 형성되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가 대표적입니다. 오랜 그리스도교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수도를 동방의 비잔티움 곧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데, 자연스레 그곳 주교의 위상도 올라갔습니다.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는 로마·콘스탄티노폴리스·알렉산드리아·안티오키아·예루살렘의 총대주교좌를 공인하였습니다. 이들 교회는 주변 교회들을 관할하며 교구별로 고유한 전례와 관습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 교리의 완전한 일치로 하나의 그리스도교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5세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가 에페소 공의회(431년)에 단죄되고 단성설(單性說)을 주장하던 에우티케스도 칼케돈 공의회(451년)에서 단죄되면서 여러 분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한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는 각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하였고, 관습과 제도의 많은 차이에다 정치적 이유까지 겹쳐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054년에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케룰라리우스가 라틴 전례 교회와 수도원들을 폐쇄하고, 신경에 필리오케(filioque) 문구를 삽입한 점과 성찬례 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한 점 등을 비판하자, 교황 레오 9세(1049~1054년 재위)는 1054년 홈베르트 추기경을 대표로 한 교황 사절단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극한 갈등이 발생하고 마침내 홈베르트 추기경은 1054년 7월 16일, 소피아 대성당의 중앙 제단 위에 파문 문서를 놓고 떠나게 됩니다. 총대주교도 교황 사절단을 파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와의 일치로 돌아온 동방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동방 가톨릭교회라고 부릅니다. 1551년에 다수의 네스토리우스파 교회가, 1553년에 칼데아 교회가, 1724년에 안티오키아 멜키프(가톨릭) 교회가, 1742년에 아르메니아(가톨릭) 교회가, 1783년에 시리아 안티오키아(가톨릭) 교회가, 1824년에는 콥트(가톨릭) 교회가 서방 교회와 일치했습니다. 또한 위치는 동방에 속하지만, 처음부터 로마와 결별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마로니타 교회도 동방 가톨릭교회에 속합니다. 이들은 고유의 전통과 전례를 인정받고 보존하면서 교황의 수위권을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20세기 들어 가톨릭교회는 정교회와의 일치를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1963~1978년 재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동방 교회 교령」(1964년 11월 21일)과 「일치 교령」(1964년 11월 21일)을 통해 동방교회 전통의 보존과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 12월 7일, 아테나고라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와 함께 1054년에 있었던 상호 파문을 철회하고 화해하였습니다. 이로써 900년 넘게 이어지던 반목의 벽을 넘어설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일치 주간을 맞이하여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똥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 번주 본당 축일 명단
18일 리베라따: 구미경
21일 아녜스: 정유현, 김영분, 오정화, 오미숙, 고여원

공 지 / 단 체

- 1월 사목협의회
일 사: 1월 18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1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사: 1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초 축성 및 봉헌 안내
2월 2일(월) 주님 봉헌 축일에 1년 동안 성당 제대에 사용할 초를 봉헌하실 분과 가정에 사용할 초를 구입하실 분은 본당 사무실에 신청 문의 바랍니다.
제대 사용 봉헌 밀납 초: 1개 60,000원
가정용 초: 1개 5,000원
- 성 가지 회수
2월 18일 재의 수요일에 참된 신앙의 삶을 다짐하는 예절에 사용될 재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작년에 나누어 드린 성 가지를 2월 11일 수요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 성공기원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기 간: 2026년 1월 - 2027년 7월까지
방 법:
① 지향: 2027 WYD와 젊은이들을 위하여
② 마침기도로 '2027 WYD 공식 기도문'을 바침
③ 목주기도 10단을 바칠 때마다 목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목주알과 봉헌함은 성전 뒤쪽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1월 18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양경희 루시아, 류은희 소피아	
1월 25일	주송자	오정화 아녜스
	김순곤 라자로, 이경예 마르타	

우리들의 정성(1/5 - 1/11)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7건 970,000원
주 일 헌 금 884,000원
- 감 사 예 물
김영희 50,000원 김상훈 20,000원
박성아 30,000원 송주은 10,000원
최지수 20,000원 김기욱 20,000원
김설아 30,000원 최성윤 10,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화답송



(후렴)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